

막걸리 잔치·모바일 시장·한복 체험 거리...

# '색' 입힌 목포 전통시장 복직

남진야시장·석현동 청호시장 등 방문객 급증·모바일 주문 수백건 환경 개선하고 안전점검 진행도

목포시가 대표 전통시장들의 특색을 살려 '찾고 싶은 시장'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남진야시장은 지난 20일 '막걸리 파티'를 열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손님들은 전통주인 막걸리를 시음하고 지역 출신 가수들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다.

남진야시장은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보완해 지난 3월 다시 문을 열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남진야시장은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연 덕분에 재개장 이후 월평균 1000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석현동 청호시장은 지난해 11월 모바일 시장을 열어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350여 건의 모바일 주문을 받았다.

용당동 동부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인 '시장 매니저'를 도입한다.

전통 포복과 한복이 주력 상품인 신중앙시장



지난 20일 목포 자유시장 안 '남진야시장'에서 열린 막걸리 파티를 찾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고 있다. <목포시 제공>

은 '한복 특화 체험 거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신중앙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치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주차시설 편의를 높였다.

5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 전통시장 1번지'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오래된 지붕을 개선해 쾌적함을 더했다.

동부시장과 자유시장, 청호시장, 종합수산물시장, 중앙식료시장, 항동시장, 신중앙시장 등 목포지역 전통시장 7곳은 전기시설 화재를 예방하

기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지붕-폐쇄회로(CC)TV-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했다.

목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는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 회의를 매달 한 차례 열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모든 전통시장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육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테마 있는 땅끝 낭만 걷기 어때요

해남군 '마냥·새벽·일몰 걷기' 등... 11월까지 '워킹데이'도

해남군이 남도 대표 걷기여행길인 달마고도와 코리아둘레길(남파랑길, 서해랑길)을 걸어보는 '해남 달마고도·코리아둘레길 워킹데이' 걷기행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운영한다.

해남군은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걷기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산과 바다를 걷는 땅끝 낭만 걷기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 시작해 매일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트레킹가이드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마냥걷기', '새벽걷기', '일몰걷기', '걷기탐방' 등 매번 다른 코스와 테마로 진행돼 해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단순한 걷기 뿐만아니라 줍줍(줍다+조깅)을 통

한 환경보호도 함께 실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차수별 선착순 40명씩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해남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남 걷기여행 후기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3년 '달마고도·코리아둘레길 걷기행사'에 참여하거나 개별로 해남의 걷기여행길(달마고도, 코리아둘레길)을 걷고 나서 본인 SNS를 통해 후기를 작성하면 매일 말 5명을 선정해 해남 농수특산물 꾸러미를 보내준다.

SNS 후기 이벤트 참여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달마고도.

#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강필구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윤 대통령과 간담회서 건의

영광군의회는 강필구 의장이 최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필구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통령실 수석, 주무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 의장은 윤 대통령이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겹직이 금지되면서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참여가 늘 수 있도록 의정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은 현실적



강필구(왼쪽)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인 의정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자세히 살펴볼겠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에 열린 '제249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와 17일 장흥군에서 열린 '제281회 전

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의정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자립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 비금도 '천일염 체험센터' 문 열어

교육·전시장·베이커리 카페 가공품·지역 특산물 판매도

신안 비금도에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사진)가 문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 22일 비금면 대동염전 일원에 신안천일염 체험센터를 열고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진행했다.

센터가 들어선 대동염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문화유산이다. 또 비금 수림염전은 1호 염전으로 국내 갯벌염전의 사회문화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신안천일염 체험센터 건립에는 국비 13억원과 교부세 5억원, 군비 11억원 등 총사업비 29억원이 투입됐다.

총면적 664㎡로, 1층에는 천일염 소금 체험장·교육장, 2층 전시장·베이커리 카페 등이 들어섰다. 2층에서는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



한 음식과 천일염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천일염 가공제품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 주민 소득 증대에 보탬을 줄 방침이다.

센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관식에 참석해 "갯벌과 천일염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문화관광, 음식관광이 결합된 복합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